



1900만 조회수 '곡예사' 주인공 '쇼미더머니 10' 우승자 조광일



광주 출신...속사포 랩·파열음 특징 '광순웅' 발매, 지역 힙합씬과 교류

“지역서 예술로 성공 힘들지만 노력하면 빛 볼수 있어”

“쇼미더머니 10 우승 전까지 힙합 씬에 저를 향한 의심의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런 목소리에 정면으로 응수하고 나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죠. 광주에서 나고 자라며 '부드러운직선', '보헤미안 소극장'에서 활동하고 로컬 힙합 크루에 지원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지역에서 힙합으로 성공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제가 선례가 돼 희망을 준다면 좋겠습니다.”

속사포 랩과 파열음이 특징적인 래퍼 조광일은 유튜브에서 자신의 노래 '곡예사'로 19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는 Mnet 쇼미더머니 10에서 우승하고 힙합 사바이벌 랩에서 심사위원을 맡는 등, 현재 한국 힙합씬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신보 '광순웅'을 발표했으며 '광순웅'으로 KHA 올해의 신인상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최근 광산구 한 카페에서 래퍼 조광일을 만났다. 이날 “기아캘리포니아스튜디오에서 시구 및 공연을 위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는 조광일은 매스컴에서

봤던 것처럼 강렬한 인상이었다.

그는 '조광일', '조열사' 등 다양한 별명을 지녔으나 그중 '래퍼'라는 별명에는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다. 쇼미 우승 당시 고향인 남구 주월동에서 축하 현수막을 걸어주며 '래퍼(래퍼)'라는 오타를 내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던 것.

조광일은 “별명까지 탄생하면서 유쾌하게 넘어갔던 사건으로 기억한다. 광주 성심병원에서 태어나 광산중 등 지역에서 중·고교 및 대학까지 나왔는데 광주의 아들로 불러주시니 영광스럽다”고 했다.

조광일은 '쇼미더머니 페지'에 대한 생각도 들려줬다. 지역 래퍼들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던 계기였으나 페지 이후 새로운 스타를 마주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는 것.

그는 “사실상 '쇼미'가 힙합을 메이저 장르로 진전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첫 시작점'과 같았는데, 그 영향력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계속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조광일은 학창시절 노란색 공지머리와 화려한 귀걸이로 이목이 끌렸던 추억도 꺼내 놓았다. “그 시절 용돈이 5000원이었는데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사주는 작은 'FLEX(빨대기 소비)'에 빠진 적 있다. 물론 친구들은 나를 '물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다”며 웃어 보였다.

그는 친구, 게임(스타크래프트)도 좋아했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음악'이었다. 수업 시간에도 줄 이어폰을 귀머리 아래로 감춰 힙합 레전드 에미넴부터 다이아믹듀오, 드렁큰타이거 등 노래를 몰래 들었다.

“스물셋에 서울로 올라와 작은 방에서 지내며 '버스(Verse·40초 분량의 가사묶음)'를 하루에 7개 정도 창작했어요. 힘들었지만 당시 만든 곡들이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만들어 낸 조광일의 작품에는 자신만의 철학과 삶의 여정이 녹아 있다. 또한 광주에 대한 사랑(Shout out·힙합씬에서 특정 대상을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가령 쇼미(음원미션)에서 코드쿤스트 팀과 불렀던 곡 'Wake up'에는 “이거 듣는 날 이들은 광주야 / 오늘 마지막으로 울고 웃을게”라는 가사로, 삶을 돌아보듯 써내려간 '자소서'에는 “180의 키에 낫날 처음 본 걸 알아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라는 노랫말로 광주를 사랑한다.

조광일은 사자레코드도 소속사를 옮긴 뒤 쿤타, 스킵, 식보이 등 아티스트와 협업 중이다. 레계 색채가 짙은 래퍼들이 다수 포진한 레이블이기에 색다른 작업물들이 기대된다.

그는 “사실 내가 하는 리듬, 래핑이 '레계'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형들(쿤타, 스킵)의 음악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됐다”며 “장르적 측면에서 다양한 콜라보를 기대해도 좋겠다”고 했다. 협업하고 싶은 예술가로는 트랜디한 음색으로 주목받는 '카타기'의 이름도 언급했다.

그의 장기인 '속사포 래핑'에 대해서도 물었다.

“광주에 오래 살아서인지 지역에서 예술로 성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노력하면 빛을 볼 거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도움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타이밍이 오는 데 노력한 자만이 그 빛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글·사진·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제13회 대한민국전통채색화 공모대전’ 수상작을 만나다

26일까지 무등갤러리

서석대와 입석대를 배경으로 여섯 마리 학이 유유히 날아다니는 그림. 서석대 위에 내걸린 보름달은 환한 빛을 비추고 기다란 가지들 늘어뜨린 왼편의 소나무는 운치를 더한다. 마치 선계에 들어와 있는 듯한 신비한 분위기가 배어나온다.

제13회 대한민국전통채색화 공모대전 대상작 '향해-무등을 담다' (강상권)는 담담하면서도 서정적인 정취를 발한다. 무등을 향해 날갯짓을 하는 학들은 마치 이상의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것 같다. 지역민들이 갖는 무등산 그리고 서석대와 입석대, 소나무, 학에 대한 이미지가 민화라는 작품에 조화롭게 응결돼 있다.

26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진행중인 이번 '제13회 대한민국전통채색화 공모대전'은 부문별 수상작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광주시 동구문화원(원장 김용원)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모두 240여 점의 민화 작품이 응모했다.

전통채색화에는 우리 민족의 심미적인 감각과 정취가 담겨 있다. 여백의 미는 물론 소박한 생활 양식, 선조들의 일상 속 감정들이 다채롭게 구현돼 있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준다.

이행자 공모대전 운영위원장은 “옛 선조들이 그림을 통해 서민의 염원과 생활의 풍습에 이르기까지



제13회 대한민국전통채색화 공모대전 수상작 전시 장면.



강상권 작 '향해-무등을 담다'

지 격식에 매임없이 자유분방하게 그린 그림이 민화”라며 “많은 민화인들이 붓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인내가 찬란한 작품이 되어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우수상 정정미 작가의 '여름정원'은 뜨거웠



정정미 작 '여름정원'

던 지난 여름을 뚫고 피어난 정원의 꽃들을 형상화했다. 폭염의 열기 탓에 풍성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모습을 화사하게 피워낸 꽃들의 자태는 인고와 기다림의 의미를 머금고 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눈길 끄는 'GD30갤러리' 개관 기념 첫 전시

'동구 예술작가회'

'GD30갤러리'는 예술의거리 옛 준갤러리 자리에 들어선 새로운 전시공간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미술공간이다. 작가들은 전시 외에 판매 등 창작과 병행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GD30갤러리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 '동구 예술작가회'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2일 개막해 진행 중인 전시는 작가 23명이 참여했다. 김선미, 박정일, 신철호, 정영욱, 정인수, 정혜영, 최재영, 이선하, 한승희, 김병택, 김재현, 변경섭, 김준미, 강남구, 박제인, 최수미, 조주남, 정철, 박선정, 이순형, 신철호, 김진아, 문서현, 이진희 작가 등이다.

당초 GD30갤러리는 동구예술작가회(회장 최재영) 회원들이 주축이 돼 문을 열었다. 작가회에는 모두 36명이 참여하며 서양화, 한국화, 문인

화, 공예, 수채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있다. 소속 회원인 최재영, 김병택, 정혜영, 박제인, 김선미 작가 등 모두 5명이 의기투합해 지난 7월 GD30갤러리를 오픈하게 됐다.

최재영 회장에 따르면 GD30갤러리는 명칭은 공동의 첫 영어 알파벳과 예술길 30이 조합돼, 탄생했다. 작가들이 미려하나마 직접 미술문화를 활성화하고 미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자는 나름의 바람이 투영돼 있다. 12평 규모인 이곳에선 상설전시 외에도 개인전, 공동전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최재영 회장은 “GD30갤러리 개관은 창작과 판로 개척이라는 양가적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실험적 시도”라며 “작가와 갤러리 중간 시대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커뮤니티 공간도 목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생, 공간, 공유를 통해 예술의거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며 “작가와 오픈



김선미 작 '각정이 없는 방'

스튜디오를 연결해 침체된 예술의 거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도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GD30갤러리는 향후 판매 루트 다변화, 청년작가 전시 등도 펼칠 예정이다. 일요일 휴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젊은세대 감수성 자극 탐현 콘서트 '포스트잇'

27일 광주예술의전당

“기분이 나빠서 염색을 했다던 친구에게 무슨 색인지 몰랐던 내가/ 너의 안부를 먼저 걱정하게 되고 기분이 상하진 않았을까 걱정돼.”(‘T의 연애’중에서)

가수 ‘탐현’ (사진)은 트랜디한 라인과 중독성 강한 후, 젊은 세대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가사로 주목 받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커버곡을 업로드 하던 콘텐츠 제작자였으나, 직접 작사·작곡한 앨범을 발매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각인시켰다.

광주예술의전당 (전당장 윤영문·이하 전당)이 탐현 단독 콘서트 '포스트잇'을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에는 2020년 디지털 싱글 '낮선 이별'로 데뷔한 이후 '사랑한다고 말해줘', 'T의 연애', '호랑수월기'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 탐현이 출연할 예정이다.

연애세포를 자극하는 '사랑한다고 말해줘'를 비롯해 지고지순한 사랑의 마음을 가사에 담은 '나에게 그만대'가 울려 퍼진다.

2022년 발매한 리메이크 앨범 '호랑수월기' 수록 곡들도 레퍼토리에 있다. 전통 가락과 타령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해 노래는 한 편의 사설 시조



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외 최근 발매곡인 'T의 연애'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보컬은 탐현이 맡으며 정일호(피아노), 양현모(기타), 문진영(베이스), 이영우(드럼) 등이 함께 협연할 예정이다.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가수 탐현은 스티커형 메모지인 '포스트잇'처럼 다양한 음악적 개성을 지니고 있다”며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인 만큼 형형색색의 음악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R석 3만원, A석 1만원, 전당 누리집 예매.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국제포럼...26일 지맵 컨벤션홀

올해로 광주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가입한 지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미디어아트는 하나의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와 교섭을 통해 영역을 확장해왔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10주년을 맞아 의미, 향후 비전 등을 살펴보는 국제 포럼이 열린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센터장 이경호·지맵)은 국제포럼을 오는 26일(오전 10시) 지맵 2층 컨벤션홀에서 연다.

'포스트 휴먼을 넘어 비온드 휴먼-공생(共生)', 모든 생명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동시대 기후위기의 문제가 인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유네스코 정회원도시 12개국 약 50여명 관계자가 참석해 의미를 더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생명체를 위한 공생의 관점, 도시정책과 맞물린 기술융복합 예술의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하며 호주 대표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스텔라의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먼저 기조 발제는 김상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권원태 전APEC기후변화센터 원장이 맡는다.

세션1은 '기후위기 시대, 모든 생명체의 공생을 위한 도시와 정책의 실천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환경운동가)의 온라인 연설,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찬 책임교수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의장 도미니크 톨랑의 발표가 이어진다.

세션2는 '공생을 위한 기술융복합 예술적 진단'을 주제로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국립현대미술관 성용희 학예연구사, 독일 ZKM Hertzlab 디렉터 티나 로렌츠의 발표가 각각 펼쳐진다.

이경호 지맵 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기후 위기를 인류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확장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물론 친 문화정책 및 예술 환경을 재고하는 기회”라며 “전지구적 위기에 처한 기후 문제를 토대로 예술의 역할에 대해 유네스코 회원 도시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생각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